

2024. 4. 30.(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3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02-724-0138

한양도성연구소장

강성희

02-724-0283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메뉴)

museum.seoul.go.kr/scwm/NR_index.do
상단 <전시> → 좌측 <기획전시>

“19세기 조선 선비의 눈에 비친 한양도성” <순성행> 전展 개최

- 1879년 어느 유생의 기행문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순성(巡城)의 역사 다뤄
- 옛 선조의 여정을 따라 걸어보는 한양도성 순성길... 전시 통해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어
- 4. 30.(화)부터 9.1.(일)까지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 관람

-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2024년 한양도성박물관 상반기 기획전 <순성기행>을 4월 30일(화)부터 9월 1일(일)까지 한양도성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순성기행(巡城紀行)』을 중심으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온 한양도성 순성(巡城)의 전통에 대해 되짚어 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전시는 <조선 선비의 도성 산책>과 <순성의 전통>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 ‘조선 선비의 도성 산책’ 부분에서는 한양도성을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순성이 점차 문인(文人)들의 놀이문화를 대표하는 활동 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군인들의 순성에 대한 규정이 실린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놀이문화로서 순성의 풍습에 대해 언급한 『경도잡지(京都雜誌)』, 『한경지략(漢京識略)』, 그리고 조선시대 순성 관련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된다.

- ‘순성의 전통’ 부분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현대까지 순성의 역사와 변화상에 대해 살펴본다.

일제강점기에도 시민들의 여가 활동의 하나로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당시의 신문 기사를 포함하여 최근 다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순성 활동의 여러 사진과 관련 기념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옛 선조의 여정을 따라 걸어보는 한양도성 순성길

- 1879년 기록된 『순성기행』은 지방에서 과거를 치르기 위해 상경한 유생 서넛이 한양도성을 순성하고 그 소회를 남긴 기행문이다. 19세기 말 선비들의 눈에 비친 한양도성의 모습을 생생히 기록해 놓았다.
- 특히 한양도성박물관이 위치한 흥인지문으로부터 시작해 낙산, 백악을 거쳐 인왕산에 이르는 기행문의 여정을 따라 구성된 영상은 관람객들에게 시각적으로 도성의 순성길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및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은 휴관이다.

- 자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https://museum.seoul.go.kr>) 혹은 한양도성박물관 누리집(https://museum.seoul.go.kr/scwm/NR_index.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 문의: 02-724-0243)

-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봄을 맞아 야외 나들이객이 많아지는 요즘, 이번 전시를 통해 한양도성 성곽길을 따라 걸으며 옛 선조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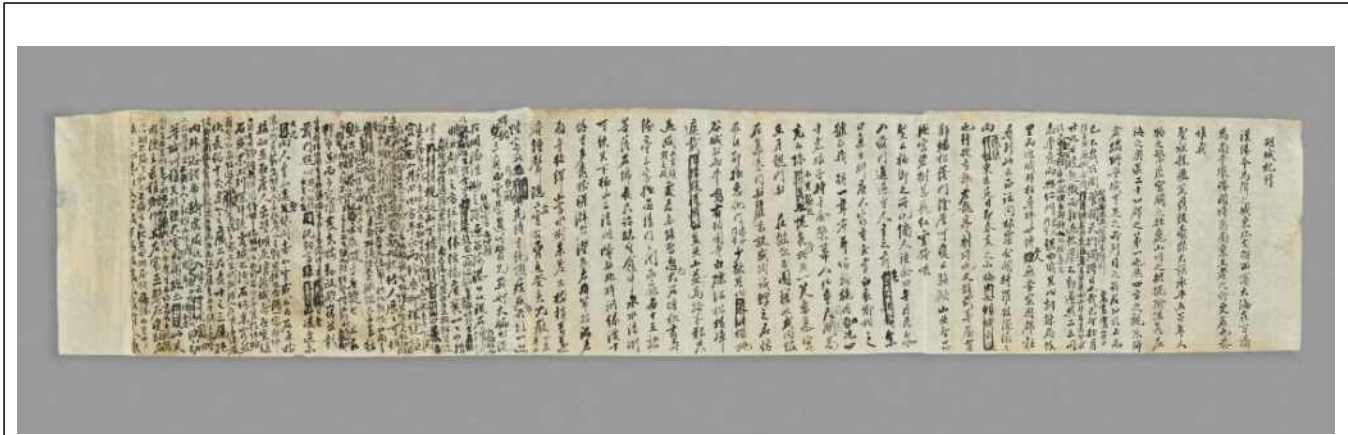
붙임 1. 전시 홍보물

2. 주요 전시 유물

[붙임 1] 전시 홍보물(포스터)



[붙임 2] 주요 전시 유물



『순성기행(巡城紀行)』, 1879년



『경국대전(經國大典)』, 17세기



『경도잡지(京都雜誌)』, 조선 후기



『한경지략(漢京識略)』, 1830년



찬합, 조선시대